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윤 섭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여성평생교육기관의
미술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소 영

여성평생교육기관의
미술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

김 윤 섭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소 영

인 준 서

김소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업무의 수행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신장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개인이 지닌 지식은 양질화되고 전문화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산업사회에서는 개별적으로 주어진 일과 한정된 내용의 학문으로 사회활동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어제의 지식과 오늘의 지식이 다른 이 시대 상황에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지식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더욱 장기(長期)화 되었으며 연장된 삶을 현재보다 더 풍요롭고, 윤택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커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조건에 평생교육의 등장배경이 있을 것이며, 그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여성들은 결혼과 함께 육아의 양육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육아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재취업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 보아도 대부분의 경력단절 여성들은 이전 직장과 동등하거나 높은 급의 직장으로서의 재취업을 원하고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쉽지 않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개인적 경제손실은 물론, 고등교육을 마친 고학력 인적 자원을 현장에 투입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성인여성들의 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의 욕구는 평생교육원의 활성화에 일조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시대적 상황에 따른 필요성과 여성 개인적인 필요와 의식의 증가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여성 평생교육의 목적은 여성의 자질개발과 자아의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과거의 고정된 지식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지식을 기반으로 정보의 획득 정도가 삶의 질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동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은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개인의 잠재적 능력의 발현을 돕고, 삶을 풍성하게 해주며, 예술적 자질의 개발을 통해 창의적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인 미술은 시대상황과 더불어 변화 해 왔다.

미술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심미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창의적 능력을 확장시켜 준다. 미술교과는 평생교육의 개념 형성 전부터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을 해왔다. 이러한 미술의 긍정적 기능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들과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경력개발 방안과 여성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양질의 우수한 미술교육의 방안을 평생 교육적 측면에서 미술교과가 제공할 수 있는 예술적 경험 및 효율적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성인여성들의 삶에 윤택함을 부여하는 교육으로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자기개발을 통한 사회활동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과로서의 미술을 평생 교육적 측면에서 연구해 본 후, 현 평생교육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미술교육 프로그램들의 사례연구를 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 차

논 문 개 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3
II. 평생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	5
1. 성인여성평생교육의 필요성	5
1) 평생교육의 필요성	5
2) 평생교육과 미술교육	8
3) 여성평생교육의 의의	10
2. 여성평생교육기관의 유형	18
1)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	20
2) 여성능력개발원	21
3) 여성회관	22
4) 종합사회복지관	22
5) 주민자치센터	23
6) 백화점 및 언론기관 부설 문화센터	24
7) 대학부설평생교육기관	25
III. 여성평생교육원의 미술교육 프로그램 분석	27
1.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분석	27

1) 대학부설평생교육원 미술교육 현황	29
2) 여성회관 미술교육 현황	39
3) 사업장 부설 문화센터 미술교육 현황	41
IV. 연구 결과 및 제언	43
1. 장소의 특성을 살린 전문성 있는 미술 프로그램	43
2. 성인여성의 취·창업 기반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확충	45
3. 차별화 된 미술 교양 강좌	49
4. 평생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현상의 해소	50
V. 결론	52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II-1〉 OECD 주요국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	12
〈표 II-2〉 기혼여성의 결혼전후 경력단절 경험여부	14
〈표 II-3〉 여성평생교육기관	19
〈표 III-1〉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현황	29
〈표 III-2〉 서울지역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현황	31
〈표 III-3〉 서울지역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미술프로그램 현황	33
〈표 III-4〉 여성회관의 미술관련 프로그램	39
〈표 III-5〉 사업장 부설 문화센터 미술교육프로그램	41
〈표 V-1〉 지역별 평생교육 개황	50

그림 목 차

〈그림 II-1〉 매스로우(Maslow)의 욕구단계	8
〈그림 II-2〉 OECD 주요국의 연령별 여성 고용비율 추이	15
〈그림 IV-1〉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교육인원	4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식 기반 사회에서 현대 성인여성은 과거에 비해 사회진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해가 거듭할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경제 활동비율 또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이 직업생활을 하면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결혼을 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시기 이다.

결혼 후 육아의 출생과 함께 양육의 문제가 찾아오면서 장기적으로 직업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현상을 여성의 경력단절이라고 하며, 20~30대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들 중에는 고학력자들도 포함된다. 게다가 고학력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정치·경제·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이며, 사회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여겨지므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성인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마친 후에도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 국가적 측면에서 큰 손실을 가져온다. 이러한 연유로 현재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인간 전 생애 주기를 포함한 교육개념’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개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여성들의 학습 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습욕구는 평생교육의 설립에 일조하였으며 평생교육원의 교육수요자 대부분이 여성들로 채워져 있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은 취미나 교양을 중심으로 개설된 과정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회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 가능한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재의 여성평생교육기관들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하다.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배움의 욕구와 함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심미적 욕구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이념이 등장하기 이전에 미술교과는 아동에서 성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층에게 취미 혹은 교양교과의 개념으로 선택되어 왔다.

미술은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 일시적이고 수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미술교과가 아닌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여와 역할을 하고 있는 교과이기에 미술교과만의 정체성을 평생교육 측면에서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은 인간 본연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과 동시에, 더 이상 전문영역으로 인식되어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영역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철학적인 토대를 확실히 하여 성인여성들이 미술전문지식을 배워 또 다른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고는 성인여성의 평생교육기관의 미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 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경력단절의 상황에 있으면서 개인의 전문성 신장과 미술교과를 통한 재취업의 기회를 평생교육원에서 찾고자 하는 성인 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더불어 윤택한 삶을 통해 만족감과 함께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여성 대상을 함께 포함한 연구이다.

여성의 생애주기 중에서 전기에 해당되는 20대~30대 여성의 특성과 함께 그 시기에 발생하는 결혼으로 인한 육아양육의 필요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 평생교육원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거나 개인적인 취미 및 여가생활을 위해 교육을 원하는 여성들의

분포도를 조사하였다.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으로서의 미술교과의 의의를 찾아본 후에, 평생교육기관에서 진행 중인 미술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여성평생교육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술교육프로그램이 미술교과의 철학을 지니고 있으면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창의적인 능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첫째, 평생교육의 등장배경 및 필요성을 고찰해 본 후, 본 연구 대상인 성인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의 원인을 선행연구 자료와 정부기관 및 각 기업 등의 통계, 연구 자료를 수집·분석해 보았다.

둘째, 여성평생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자료 및 문헌을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각 기관에서 제시한 웹페이지 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교육프로그램의 영역을 조사해 보았다.

셋째, 주요 교육대상이 여성인 평생교육기관들을 중심으로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제시된 자료와 여성평생교육 관련 부처에서 공지한 자료를 참고하여 미술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개설된 미술교육프로그램의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각 프로그램들이 여성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삶에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수강한 후에 직업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넷째, 평생교육원에서 진행 중인 미술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조사를 위해 참여관찰법을 이용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현재 여성평생교육기관은 여성부, 교육부, 노동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의 공공행정기관과 여성단체, 언론기관, 사업장 등 여러 기관들이 존재하며 프로

그램 또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전체지역, 모든 시설을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서울·경기 소재 여성평생교육기관 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주민자치센터, 대학부설평생교육원, 백화점 및 언론기관 문화센터,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원으로 제한하였다.

1) 여성평생교육기관의 현황조사의 경우 서울시·경기도의 각 기관에서 자체 홈페이지에 연혁·시설현황 및 프로그램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기에 참고하였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현황 파악에 한정되어 있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2) 여성평생교육기관들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좌는 기관별·지역별로 약 136,123 개(2009년 기준)정도 있다. 이 프로그램들 중 미술교과만을 정리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기관유형별로 일정 수의 지역 기관을 정해서 조사하였다.

3) 교육프로그램이 교양에 편중되어 있는 기관들은 미술교육프로그램 현황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서울시·경기도 소재 여성회관 3개, 사업장 부설 문화센터는 백화점 문화센터 2개, 총 세 종류의 여성평생교육기관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경우 17개 자치구에 속해있는 약 44개 시설의 미술교육프로그램들은 모두 조사하였다.

4) 여성평생교육기관의 미술관련 프로그램의 조사는 홈페이지에 제시된 강의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실제 강의 내용의 질적인 면이 평가절하되어 있을 수 있는 점에 한계성을 지닌다.

Ⅱ. 평생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

1. 성인여성평생교육의 필요성

1) 평생교육의 필요성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의 개념은 유네스코에 의하여 발달되었다.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의 국제적인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국가 및 국민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궁극에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성취하는 이상을 구현하고자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가운데 하나로 1946년 11월에 출범하였다. 196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성인교육 추진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의 선도적 주창자인 랭그랑(Paul Lengrand)¹⁾의 논문을 검토한 끝에 유네스코 사무국에 평생교육의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제안하였다. 유네스코 사무국에서는 1970년 ‘세계 교육의 해’의 기본이념으로 평생교육을 제창하게 되었고, 1970년 이후의 유네스코 주관 교육사업의 기본정책이 되었다.²⁾

랑그랑(Paul Lengrand)은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과 학교 및 사회 전체교육의 통합”을 주장했다. 그의 평생교육에 대한 견해는 인성발달의 전인성과 계속성에 주안점을 두어 교육 전 과정의 생활화,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한 계속적인 교육, 모든 교육형태의 통합적인 연계 조직화, 생의 전 기관을 통한 수직적 통합과 개인 및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수평적 통합을 강조하는 것이다.³⁾ 또한 현 교육체제의 지식습득 중심의 추상적인 교육형태가 아닌 지적, 정서적, 심미적, 직업적, 정치적, 신

1) 최초로 평생교육의 개념을 제시한 교육학자로 1965년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지냈다.

“평생교육은 개인의 출생부터 죽을 때 까지 생애에 걸친 교육과 개인 및 사회전체의 교육의 통합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2) 김종서 외 3인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2007

3) 권대봉 『평생교육의 다섯 마당』 2001, p. 16

체적인 면을 고루 갖춘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또 다른 교육학자인 데이브(Dave)는 평생교육을 ‘개인적 및 사회적 삶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 동안에 걸쳐 연장,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활동’으로 규정하여 평생교육에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함께 관련시키고 있다.

데이브(Dave)가 제시한 평생교육의 개념적 특성을 자세히 보면, 삶(Life), 평생(Life-long), 교육(Education) 등 세 개의 기본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이 용어들 간의 의미와 그에 따른 해석을 통해 평생교육의 범위와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다.

데이브(Dave)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성인교육에 한정된 것이 아닌 초등 이전, 초등, 중등학교 등 교육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형태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것과 비형식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여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여성교육의 평생 학습적 차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고 있는 한상길 외 2인⁴⁾은 “평생교육 이념의 핵심은 바로 교육의 통합 즉, 수직적 차원의 교육과 수평적 차원의 교육의 통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수직적 차원의 교육의 통합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생 동안 계속되는 교육의 단계 즉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와 같은 각 단계의 교육이 분절되지 않고 서로 일관성 있는 교육의 과정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수평적 차원의 교육통합이란 개인과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교육 영역 즉, 가정,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등이 단절되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제휴 및 협력하며 다방면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현대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를 지나 지식기반사회 단계에 있으며, 변화의 속도 또한 하루가 다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4) 한상길 외 2인 『여성교육론』 양서원, 2007, 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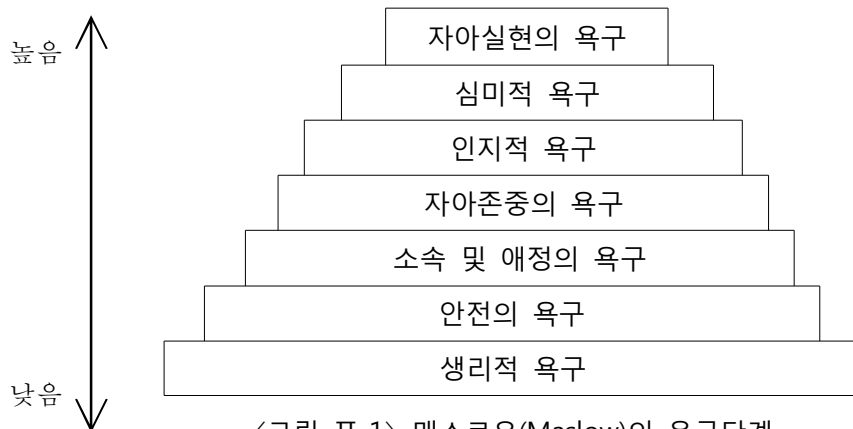
나라의 국력을 토지, 노동, 자본의 정도로 가늠하였지만,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와 지식은 현재의 지식기반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풍부한 인적 자원은 나라의 국력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은 사실이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그에 따른 갈등을 지식의 창출과 확산에서 해소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래에는 더욱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 것이며 과거보다 더 많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는 업무 형태 및 수행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등장과 함께 과거 패턴의 유지에 어려움이 생긴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 수정·보완하며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충족되면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고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현재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여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매스로우(Maslow, 1970)⁵⁾는 ‘인본주의 심리학의 리더로서 인간 동기에 관한 종합적인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동기는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 위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II-1>은 매스로우(Maslow)의 욕구 위계(hierarchy of needs)이론을 계층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5) 이옥형 외 2인 『교육심리학』 집문당, 2007, p. 97



매스로우는 하위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어야 다음 수준의 상위욕구가 생겨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위의 단계에서 최상위 개념인 자아실현욕구 (self-actualization needs)는 하위 욕구들이 충족되면 생겨나게 된다.

자아실현이란 자신의 잠재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키도록 노력하려는 욕구를 말한다. 자아실현⁶⁾은 위대한 예술가적·과학자적·정치가적인 노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 부모·운동선수·학생·선생님 또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등 각자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평생교육이 추구하는 ‘개인의 잠재력의 최대한 발현’은 자아실현욕구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평생교육과 미술교육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각 이미지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생활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정

6) 이옥형 외 2인 『교육심리학』 집문당, 2007, p. 100

도로 시각 이미지는 모두의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미술교육을 통해 이르고자 하는 도달점을 제시하였으며 일상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삶에 의한, 삶 속의, 삶을 위한 미술문화로서 미술교육에 초점을 두어 집필한 김성숙 외 8인⁷⁾은 『미술교육과 문화』에서 ‘인류는 지각하는 형상들을 고유의 시각 이미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왔다.’고 기술 하였다.

시대마다 변화해 온 다양한 미술문화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한 직접적인 자취이며 자신에 대한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술교육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방식과 양식을 시각이미지화 하여 표현하며, 이를 인식하고 해석하고, 이해와 감상을 통한 소통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자아 성찰,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자연 세계에 대한 상호조화력을 길러 자기 주도적인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로 성숙하게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 과학 및 정보화 세계의 현 시대는 예술과 정보가 강조되고 있으며 예술과 함께 문화를 중심으로 개인의 유동성과 창의성을 통한 자아실현을 위한 성장에 관심이 모아지는 시대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문화의 시대에서 미술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은 학교교육의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은 물론, 삶에 윤택함을 부여하여주며, 여가문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전환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전까지는 미술에 대한 인식은 다소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을 위한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고, 남들보다 뚜렷하고 특출 난 재능을 가지고 전공한 사람들만의 교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와 전문화, 제도적인 측면의 정비로 여가시간이 증대되었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문

7) 김성숙 외 8인 『미술교육과 문화』 2판, 2009, p. 3

화·예술을 향유하려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삶에 대한 여유를 더 나은 삶, 가치 있는 삶을 통해 찾게 되면서 평생교육으로서의 미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평생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은 한정된 공간이 아닌 사회 도처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예술의 경험을 통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를 가지고 창의적인 인격 형성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어 올바른 시민을 육성하는데 일조 하고 있다.

3) 여성평생교육의 의의

생애주기란 자연현상에 따라 계절이 변화하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생애발달에 일정한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개개인별로 다양하게 나눌 수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연령에 따른 분류와 함께 인생을 살면서 발생하는 사건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의학 및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은 과거에 비해 연장되었으며, 미래에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성인기를 세분화 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성인여성의 경우 성인 전기, 중기, 후기로 삶의 특성을 구분한다.

여성의 성인전기는 인생의 주기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는 20대에서 30대를 지칭하며, 이 시기의 여성들이 겪는 과업은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과정을 들 수 있다. 부모로부터의 물질적·정신적인 독립을 서서히 해나가는 시기인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취업과 함께 결혼이라는 인생에서의

큰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이기에 삶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다.

20대에 많은 수의 여성이 결혼을 하며 출산으로 인한 육아양육의 시기를 보낸다. 기존에 직업 활동을 했던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경력유지 및 발전육구와 더불어 가정에 충실하고자하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지만, 다수의 여성들은 가사·육아의 부담으로 직장의 업무수행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여성의 경력단절은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데, 남정보다는 주로 성인 여성에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써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등에 따라 사회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다가, 자녀가 일정 시기 성장한 다음에 노동시장으로 복귀까지의 시기를 일컬을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을 기점으로 하여 선진국으로의 안정된 진입과 더불어 저 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극대화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여성인력활용의 관련성 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주요 국가들의 평균수준인 61.3%에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9년 이후 점진적인 경기회복으로 2004년 49.9%에서 2009년에는 49.2% 수준을 보이다가 2010년에는 소폭 상승한 49.4% 수준으로 현재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49%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8)

8) 장서영,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2008, Vol. 74 No.1 p. 80

〈표 II-1〉 OECD 주요국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

구분	2009년	2005년	2002년
한국	53.9%	54.5%	53.5%
일본	62.9%	60.8%	59.7%
미국	69.0%	69.2%	70.1%
OECD 평균	61.3%	60.4%	59.6%

※ 자료 : OECD, 2010 Employment Outlook

(OECD는 만 15세 이상 ~ 만 64세 이하 인구를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앞서 제시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통계청 ILO기준으로 만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 비율을 작성한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II -1〉은 OECD 주요국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작성한 것이다. 표에서 제시된 전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은 53.9%로 OECD 평균 61.3%에 못 미치고 있다.

일선의 여성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기혼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이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가사와 출산으로 인한 양육이라는 환경적 요소들로 인하여 경력 장애를 경험하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력단절 현상’이란 25~35세 연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두드러지게 낮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형’을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이 연령대의 여성들이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이유는 자녀의 출산이 일차적으로 여성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여 여성에게 전적으로 집중되는 육아부담이 경제활동 참여 동기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⁹⁾ 이러한 경력의 단절은 결혼, 출산, 육아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의망해도 경력단절 이전의 직장과 비슷한 직장으로의 재진입이 어렵거

9) 황수경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연구」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 변경), 2006

나 이전과는 다른 저임금의 단순노동직 위주의 취업이 이루어져 여성의 노동 시장의 지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여성 자신을 위해서 지속 가능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은 지식·정보산업의 발달, 첨단 산업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고학력 여성이라는 인적 자원의 활용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측면으로 대두되고 있다. 10)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함께 여성해방운동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취업을 통한 경제적인 자립과 개인능력의 향상을 중요시 하는 여성들이 과거와는 달리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함께 육아양육을 시작하는 시기를 기점으로 한 취업단절을 대다수 경험하게 되었고, 가사를 위해 직업을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 여성들의 고학력¹¹⁾화와 높은 취업에 대한 욕구와는 다르게, 조사결과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률은 OECD국가들 중 최하위국 집단의 범주에 속하며,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중반에 가장 높고, 결혼과 함께 출산·육아기와 맞물려 30~34세 이후에 급격히 하락하고 이후 상승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경력이 단절되어 노동시장을 이탈한 후에 재진입을 하지 않는 'L자형(L-shaped curve)'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수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0) 박승호, 유숙영 「 고학력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연구」 『 여성연구 논총』 Vol.21, 2008, p.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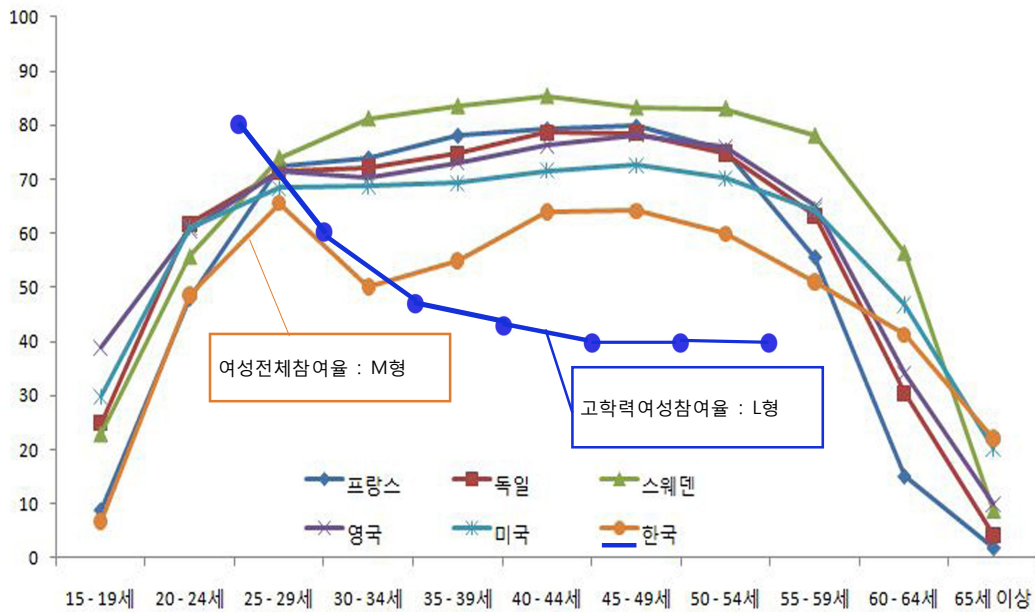
11) '고학력'이라는 용어는 고등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보다 많은 교육적인 투자를 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고학력'을 '전문대 졸 이상'으로 보거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으로 통일하여 한정한다.

〈표 II-2〉 기혼여성의 결혼전후 경력단절 경험여부 (2009) (단위: %, 명)

여성특성별 (1)	여성특성별 (2)	여성특성별 (3)	2009			
			경력단절 경험 있음	경력단절 경험 없음	계	명
기혼여성	소계	소계	39.3	60.7	100.0	2,242
	연령	20~24세	42.9	57.1	100.0	14
		25~29세	31.7	68.3	100.0	249
		30~34세	36.9	63.1	100.0	537
		35~39세	40.1	59.9	100.0	743
		40~44세	42.7	57.3	100.0	698
	교육수준	중졸이하	35.0	65.0	100.0	40
		고졸	43.2	56.8	100.0	1,198
		대졸	35.1	64.9	100.0	972
		대학원졸 이상	21.9	78.1	100.0	32
	취업여부	취업	29.4	70.6	100.0	1,036
		비취업 (구직활동)	46.3	53.7	100.0	326

※ 자료 : 통계청

〈표 II-2〉는 기혼여성의 결혼 전·후에 나타나는 경력단절 현상을 통계 낸 자료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 인력의 연령대별 경제 활동 참가율은 출산 육아기인 25-34세에서 하향했다가 출산 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M자형’을 보이고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대졸 이상 여성의 경우는 아예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양상의 ‘L자형’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Labor Force Survey, 2009

현대 경제연구원 분석자료 인용 및 편집

〈그림 II-2〉 OECD 주요국의 연령별 여성 고용비율 추이

위의 그래프는 OECD 주요국가의 연령별 여성 고용비율 추이를 그래프로 정리한 통계청의 자료에 재편집을 한 것이다. 여성 인력의 연령대별, 교육정도별의 경제 활동 참가율의 변화를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다.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M자형’ 과 ‘L자형’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결혼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함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원인으로서는 직업 활동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향은 있으나 육아와 가사 전담 등의 이유로 참여를 포기하거나, 참여에 따르는 조건이 기대 수준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학력 여성의 현저히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경력단절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현상은 고학력 여성의 삶의 만족도 저하를 초래한다. 자아

정체성의 확립과 자아실현에 대해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고학력 여성들의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은 전 세계적으로 교육정책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일반 교육체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으나 실질적인 학교 밖의 다양한 평생교육시스템의 참여자 대부분은 여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점을 들 수 있다. 여성들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출산을 전후로 경력 단절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져 가사와 육아 양육으로 인한 연유로 이 시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저하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성들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의 어려움으로 기업과 산업체에서는 여러 교육훈련의 투자와 그 기회를 상대적으로 남성들에게 집중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경력개발의 단절과 제한된 교육훈련기회를 극복하기 위해 평생학습에 주목하였다.

한국평생교육학회의 여성의 평생교육연구 자료에 의하면 여성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는 또 다른 측면도 존재한다. 정규 교육을 받는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고학력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성인학습자들 중 교육기회가 적을 때 교육받지 못했던 여성들은 학력 신장의 방안으로 정규 대학과정이나 대학원과정을 평생학습으로 선택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¹²⁾

여성인구의 점진적 증가도 평생교육시설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 스스로가 능력 신장, 즉 자기 계발을 위해 배우는 활

12) 신미식 「여성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 : 가능성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 연구」 2002, 18(1), pp. 121-151

동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한상길 외 2인¹³⁾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2635 여성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 여성 중에 63%이상이 ‘자기 계발’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또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여성들 사이에 불고 있는 칙릿(Chick-lit)¹⁴⁾열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보면 ‘세련된 성공을 꿈꾸는 모습이 나쁘지 않다(68%), ... (중략) ‘칙릿’세대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도 현재의 40대 이상의 기성세대 여성과는 매우 다르다. 그들 세대의 삶에 대한 태도는 ① 금욕적인 것보다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먹고 싶은 것은 먹으면서 산다, ② 소비하면서 저축도 한다, ③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성이 사랑받고 성공한다, ④ 외모 가꾸기와 여가생활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등이 바람직한 생활이라고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여성이 자연스럽게 일과 여가와 배움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직업을 갖는 것을 원하고 있다. 다양한 배움 활동을 통해서 자기 계발에 몰두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자기 계발은 특정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주변의 모든 공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여성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들까지도 모두 배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

여성평생교육은 사회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13)한상길 외 2인 『여성교육론』 양서원, 2007, p. 21

14)칙릿(Chick-lit)이란 젊은 여성을 의미하는 속어 Chick에 문학 Literature를 결합시킨 말로 20대 여성 독자를 겨냥한 영미권 소설을 말한다. 이른바 치크북이라 불리는 여성 자기 계발서가 큰 인기를 끌면서 칙릿(Chick-lit)열풍이 불고 있다.

위함은 물론 사회활동 참여기회의 확대와 자아개발 및 욕구충족, 경제활동의 확대 등을 위한 취업 및 부업 준비 활동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여성 평생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체제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여성평생교육기관의 유형

여성들의 잠재적인 능력의 개발과 함께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그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지원과 여러 여성 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사회보장 차원에서 여성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학습참여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의 유형이 존재한다.

여성평생교육 실시기관의 유형은 여성만을 위한 여성교육전담기관과 일반평생교육 실시기관 내의 여성대상 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여성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여성회관, 여성단체, 농협주부대학, 농업 진흥청의 생활과학관, 사회복지관, 구민회관, 언론기관,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자치구의 여성 센터 등이 있으며, 일하는 여성의 집,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종교기관 등에서도 여성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평생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들을 제시해 보면 <표Ⅱ-3> 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II-3〉 여성평생교육기관¹⁵⁾

구분	기관유형	기관	교육영역	대상
여성평생 교육전담 기관	기관형 교육기관 (여성관련 시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	기초 직업훈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준비생
			전문 직업훈련	무직자 직장인
	기관형 교육기관 (여성관련 시설)	여성능력개발원 (서울·경기)	직업교육 교양교육	시·도 거주자
	기관형 교육기관 (여성관련 시설)	여성회관	기초학문교육 삶의 질 향상	각 시·군·구 거주자
주 교육 대상이 여성인 기관	기관형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취미·교양교육	각 지역 거주민
	기관형 교육기관 (주민자치기관)	주민자치센터	문화·복지 편의시설 취미·교양교육	각 지역 거주민
	사업장 및 언론기관 부설	문화센터	교양증진 및 전문성확보 문화서비스 제공	일반성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전문 인력양성 학력인증 취업교육 교양증진 개인 삶의 질 향상	일반성인

〈표 II-3〉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교양·문화교육 및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들 중에서 여성전담 혹은 주 교육 대상을 여성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교육 참여도가 높은 평생

15) 표에 제시된 평생교육기관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대상이 국·공립 기업체에서 연수를 위한 직원으로 교육대상이 한정되어 있거나, 교육영역이 사회적인 측면에 한정되어 있는 기관은 제외하였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기업체연수원, 정부투자기관연수원 등)

교육기관들을 중심으로 나열해 보았다.

이와 같은 여성평생교육기관들은 여성들을 위해 여성의식을 고취하고 능력을 개발하여 평등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자질형성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1)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당당한 여성의 앞서가는 선택! 21C Woman Leader Power!’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여성의 교육지원에서 취업지원까지 사회에서 여성의 활동능력을 고취하기위해 설립하였다. 비영리 민간 여성단체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기초·전문 직업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설립 의의가 있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① 지역인력시장에 부응하는 교육 훈련 특화와 ②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취업교육/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 ④ 직업능력 개발 훈련사업, ⑤ 사회/문화생활 사업지원과 ⑥ 저소득층 여성중심 취업상담 및 알선, ⑦ 근로여성의 고충 상담’ 등이 있다. 이러한 교육서비스의 지원대상은 경력단절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여성, 사회에 첫발을 딛는 여성으로서 첫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시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직업을 계획하는 무직자, 현재 고용불안성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전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직장인 등 이다.

경력단절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직업을 계획하는 무직자 또한 교육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음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율을 높이는데 보다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또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미래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51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연합으로 전문 직업교육장, 양재실, 컴퓨터실, 상담실, 요리실습실 등 센터별로 다양한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의 복지를 위한 놀이방, 고용평등상담실, 무료법률상담, 직업교실 등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2) 여성능력개발원(서울)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의거하여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하기 위해 설립 되었다. 시에서 지정하여 설치되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직영 및 여성가족재단’에 위탁·운영되고 있다.

전문직 여성인력을 양성하여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함께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여성복지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지역문화·교육·복지의 증진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센터의 목적이 있다.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운영 성과와 사업실태를 점검하고 기관의 운영 개선과 경영 합리화를 유도하고자 운영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기관 교류협력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취업지원 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대표,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정책과 직업교육 방향성 수립에 관한 논의를 하고,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또 여성구직자의 수요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취·창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와 같은 교육을 위한 사업과 함께 지역민의 건강을 위한 수영교실과 헬스교실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3) 여성회관

여성회관은 각 지역 내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교육시설, 공연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여성회관들의 사업 취지를 보면 과거의 여가와 취미 위주의 교육보다는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자아실현 및 경력 단절자의 사회참여를 이끌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여성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설립의의를 두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여성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외에도 예식장·유아실·미용실 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과정에는 직업훈련과정, 생활기술과정, 정보화과정, 자격증과정, 문화·예술과정, 전통문화과정, 자녀지도과정, 실버대학 등이 있는데 대부분 여성 중심의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교육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여성전문 평생학습시설로서의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종교단체 및 지역단체에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각 복지관마다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북한이탈주민 적응사업, 노인복지사업, 자활사업,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사회교육프로그램 등이 있다.

5)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시설로 다양한 문화·복지·편의시설 제공과 프로그램운영 등을 하고 있다. 16)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시대 변화에 적합하도록 일부의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민원과 복지과 정보기능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다. 그 결과 남는 여유 공간에 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와 복지 편의시설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 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이다.17)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의의는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개방과 일정수의 취미·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어려운 이웃돕기, 이웃 간의 대화 나누기, 지역의 각종 대소사 의논 등을 나누며 주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다.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와 여가, 시민교육, 주민 편의,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 자치활동 등 5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 주민들이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여가선용 및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등 공동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민활동의 장 또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여가와 취미·교양을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다분하였지만, 최근에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향상과 자아정체성 확립,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다.

1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제 1조와 제 2조 참조

17) 한상길 외 2인 『여성교육론』 양서원, 2007, pp. 111-112

6) 백화점 및 언론기관 부설 문화센터

문화센터는 예술연합회, 수공예기능연합회 등의 연합회에서 각 지역별로 지부를 두어 운영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지도 및 기관의 신뢰도도 높은 백화점 및 언론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보편적이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의 평생교육 활동은 평생교육법 제 23조¹⁸⁾(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의거한다.

이와 같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목적은 사업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시설 설치 대상은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일정 규모 즉, 종업원 2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의미한다.¹⁹⁾

대표적인 평생교육시설로는 백화점 부설 문화센터를 들 수 있다. 수강생들의 교양증진 및 자질향상, 여가선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래의 백화점의 이윤 추구 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문화 사업을 실시한다는 목적 하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백화점 고객들인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양·여가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도시 중심의 기관에 국한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들은 어학, 미술, 음악, 건강, 사진, 요리 등으로 취미와 교양증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략 주 1회씩 2개월 혹은 3개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일회적이고 이벤트적인 프로그램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분야를 단기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데 주얼리(jewelry)제작, 에그아트, 냅킨아

1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경영자는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 한상길 외 2인 『여성교육론』 양서원, 2007, p. 116

트, 포크아트, 네일아트 등 취미나 생활 소품 제작 등 실용적인 부분이 다수를 이룬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26조²⁰⁾와 관련되어 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1980년대 이후 백화점의 문화센터와 함께 일반 국민들의 여가선용 및 교양증진을 위해 출발되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방송사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생기면서 종래의 여가나 교양 중심에서 방송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주는 직업준비 과정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기관 또한 백화점과 같이 대중적인 이미지 개선과 함께 고객확보의 측면과 신뢰성을 높여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7) 대학부설평생교육기관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일반교양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양교육과정, 전문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 학위과정으로 독학에 의한 학위과정과 학점은행제, 보육교사양성과정, 미술심리치료사 등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최근에는 산업체·공공기관의 위탁교육,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이 설치되어 있다.

대학평생교육원은 대학이 지닌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일반인들에게 교육기회의 확대와 고등교육 인구의 확대 계기를 마련하고자 설립 된 것이다.

교육은 더 이상 정규교육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인간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며 개인의 희망에 따라 학교교육 보충을 위한 학습, 직장 이동

20) 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해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 증진과 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이를 설치하고자 하거나 폐쇄할 때는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및 승진을 위한 학습, 건강 및 보건을 위한 학습, 전문 자격증 취득 학습 등 학습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의 평생화, 개개인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교육을 통한 잠재성의 계발을 통해 인간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교육기회의 균등화는 평생교육이 추구하는 이념이다. 이는 대학평생교육원이 추구하는 이념으로 지식자원들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교육욕구 충족을 위해 열린 학습 장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Ⅲ. 여성평생교육기관의 미술교육 현황

1. 여성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분석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성인학습자 중 주교육 대상은 여성들이며 이들을 위한 여성중심의 평생교육기관은 대학부설평생교육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주민자치센터, 사업장 및 언론기관부설문화센터,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능력개발원 등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설립 목적은 비등하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능력 계발을 통해 재취업 기회의 확대를 지원하는 점, 교양을 증진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교육 등이 그것이다.

평생교육의 범주에서 미술교육과정은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는데,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박물관 특설강좌를 그 시초로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들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의 ‘현대미술 아카데미’ 강좌가 개설되었고, 그 후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강좌와 백화점·사설기관에서 유사한 형태의 미술 강좌가 생겨났다.²¹⁾

대학부설로는 1986년 홍익대학교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미술교과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교양과목에 국한되었던 미술관련 강좌는 평생교육과정의 과정에 도입되어 학점은행제, 자격증 과정이 개설되고 학습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평생교육기관은 교육수요자들에게 미술프로그램을 통한 예술적 경험을 통해 예술의 긍정적인 기능들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미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여러 미술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앞 단락에 제시한 여성평생교육기관과 그 외에도 여성을 대상

21) 박은경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미술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현대미술연구소 논문집 8권』 2005, p. 177

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들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여성교육전담기관 및 일반평생교육기관들 중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여성회관, 사업장 및 언론기관 부설 문화센터의 세 가지 평생교육기관²²⁾을 중심으로 미술교육프로그램 강좌의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를 하였다.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은 서울지역 17개 자치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미술교육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여성회관은 서울시와 경기도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활발히 하고 있고 수강자들의 마감비율이 높은 기관, 여러 문화시설을 구비하여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는 기관을 3개를 지정하였다.

사업장 부설 문화센터는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문화센터를 통해 회사 이미지의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백화점 2개를 조사하였다.

22) 현재 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직업 관련 자격증 분야와 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 관련 교과가 개설되고 있지 않아서 조사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1)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미술교육프로그램 현황 분석

〈표 III-1〉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현황 (단위 : 개, 명)²³⁾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학	전체 학교	258	257	256	254	257	262
	평생교육원	222	255	237	238	241	246
	교육과정	11,020	13,593	13,805	14,797	18,286	19,546
	교육인원	221,711	233,620	420,187	457,574	573,458	683,174
전문대학	전체 학교	161	155	152	151	150	149
	평생교육원	111	120	126	130	132	134
	교육과정	4,001	4,216	3,870	4,192	4,864	5,417
	교육인원	49,896	50,105	101,034	144,829	179,000	196,212
기능대학	전체 학교	-	-	11	11	11	11
	평생교육원	-	-	12	10	7	9
	교육과정	-	-	643	427	887	668
	교육인원	-	-	2,218	13,520	6,128	5,601
계	전체 학교	419	412	419	416	418	422
	평생교육원	333	375	375	378	380	389
	교육과정	15,021	17,809	18,318	19,416	24,037	25,631
	교육인원	271,607	283,725	523,439	615,923	758,586	884,987

출처 : 평생교육통계자료집, 2010. 11. 30 기준

23)① 대학에는 교육대학,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대학과정), 각종학교(대학과정), 사
이버대학(대학과정), 원격대학(대학과정), 사내대학(대학과정), 대학원대학이 포함됨
③ 전문대학에는 전문대학, 각종학교(전문대학과정), 기능대학(전문대학과정), 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전
공대학이 포함됨
④ 기능대학은 2007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2006년 이전 자료는 없음

〈표 III-1〉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원 수는 전문대학은 ('09) 132개 → ('10) 134개 2개 증가, 대학은 ('09) 241개 → ('10) 246개 5개 증가, 기능대학은 ('09) 7개 → ('10) 9개 2개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설치과정 및 교육인원 증가 현황은 과정 수는 ('09) 24,037개 → ('10) 25,631개로 1,594개 증가, 교육인원은 ('09) 758,586명 → ('10) 884,987명으로 126,401명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원수의 증가는 미술 교육관련 강좌 개설 수의 증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실시되는 과정은 학교마다 기준과 과목 특성이 다르지만 교양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 학점은행제의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교양교육과정은 개인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지적·문화적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 개설된 과정이다. 소묘·수채화·인물코스튬·유화·서양화·크로키·염색·도예·디자인·서예·조소 등의 실기 강좌와 미술이론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둘째, 학력인정과정으로 학위취득과 학점인정이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학점은행제의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개설되어 있다.

셋째, 기술 습득 및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수료 후 국·공·사립 대학총장명의 자격증이 주어지거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미술지도사', '아동미술치료사', '미술심리치료사' 등이 이에 해당되며 민간자격증이 수여된다.

현재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성 관련기관 중에서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들만 망라해 보면 서울시 소재 17자치구에 포함되어 있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수는 약 43개에 이른다. 자치구별로 설립되어 있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현황은 〈표 III-2〉로 정리할 수 있다.

〈표 Ⅲ-2〉 서울지역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현황²⁴⁾ (단위 : 개)

대학	지역	계
감리교신학대학교	서대문구	6
연세대학교		
명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평생교육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동대문구	4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시민대학		
삼육보건대학		
고려대학교	성북구	5
성신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 여성사회교육원		
한성대학교 - 사회(정보과학)교육원		
고려사이버신학대학 - 원격평생교육시설	종구	4
동국대학교		
송의여자대학교		
한성디지털대학교		

24)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여성교육관련 기관에 소개하고 있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기에 각 소재지에 실제 몇몇 대학평생교육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표에는 명시되지 않는 곳도 있다.

서울여자대학교	노원구	4
삼육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광운대학교		
성공회대학교 - 민주사회교육원	구로구	1
덕성여자대학교	종로구	4
상명대학교(서울)		
상명대학교(천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관악구	2
중앙대학교 - 종합사회복지관		
그리스도신학대학원대학교	강서구	1
세종대학교	광진구	1
숙명여자대학교	용산구	1
승실대학교	동작구	3
중앙대학교		
총신대학교		
베뢰아대학원대학교	영등포구	1
이화여자대학교 -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마포구	3
홍익대학교 - 미술디자인교육원		
서강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송파구	1
한양대학교	성동구	1
서울교육대학교	서초구	1
계	17	43

〈표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에 감리교신학대학교, 경기대학교, 명지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운영 중인 기관이 6개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성대학교 등에서 5개가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다.

서대문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구, 노원구 등에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 내에서 이들 지역과 다소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습자에게는 이동시간의 문제가 강좌 수강의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Ⅲ-3〉 서울지역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미술프로그램 현황²⁵⁾

대학	자격증과정	전문교육과정	학점은행제	교양강좌
감리교신학대학교	미술심리지도자과정	•	•	•
경기대학교	•	•	•	현대미술아카데미
경희대학교	미술심리치료사	•	•	민화(기초,심화)
	생태미술지도자(1,2)			서예
고려대학교	미술치료사 (4단계)	•	•	포크아트 &패션페인팅
	컬러리스트			•
국민대학교	미술심리지도사(입문)	미술집단상담	•	도자공예(초·중)
	초크아트공예3급			서양화-유화
	홈인테리어공예3급			서양화-수채화
				디지털아트(초급)
				전통민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	•	•	•

25) 2011년 현재 자격증과정, 학점은행제, 교양과정에 미술교육프로그램의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타 과목은 개설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미술을 중점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만을 표기하였다.

그리스도신학대학 원대학교	미술심리치료지도사(1,2급)	•	•	•
	아동미술실기지도사			
	종이접기			
	점핑클레이			
	예쁜손글씨 P.O.P			
덕성여자대학교	어린이북아트지도자	•	•	•
	아동미술심리지도자			
동국대학교	미술심리지도사	•	•	그림으로보는
	북아트지도사			서양미술사
	색채심리지도사			다종이인형
	표현예술치료(민간)			한지화
				문인화
				사군자
				서예
동덕여자대학교	아동미술지도사	•	디자인론	풍선아트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색채학	
			미술치료	
			아동미술	
미술치료사(1,2급)		의복과색채	종이접기	
			코디네이트미학	
명지대학교	미술치료사	•	시각디자인학	•
			미술과생활	
			미술치료	
			코디네이트미학	
삼육대학교	아동미술실기지도사	•	시각디자인	•
			아동미술학	
			미술과생활	
			서양미술사	
상명대학교(서울)	아동미술심리지도사	•	•	동양화
				서양화
				판화
				인체드로잉
				실용염색
				스타일리스트
				서양화 특강
상명대학교(천안)	•	•	•	서양화
				수채화
				문인화
				서예 (초·중)
				소묘
				생활도예 (A·B·C·D)
				섬유로 만드는 액세서리
서강대학교	•	•	미술과생활	•

서울교육대학교	미술치료사	•	•	그림으로 보는 서양미술사
	아동미술지도자			압화
	영재미술지도사			한글 서예 생활도예 및 도자장신구 기초 서양화
서울대학교	•	•	•	미술가들이 보여준 20C 세계 미술관 기행
				드로잉
				유화
				도예
서울시립대학교	미술심리상담사	•	•	포슬린 페인팅 장신구 디자인
				문인화
				서양화 동양화 전통민화 서예
서울여자대학교	아동미술지도사	미술치료심화	아동미술	회화
			드로잉	
			회화	
			미학개론 서양화감상	
성신여자대학교	미술심리지도사	•	•	기초부터 배우는 서양화교실
	색채심리지도사			전통민화의 실용화
세종대학교	•	•	색채표현기법	•
			기초디자인	
			드로잉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미술심리지도사	미술치료(6단계) 색채심리전문가 금속공예	•	•
	특수아미술실기지도사			
송실대학교	•	•	•	•
송의여자대학교	종이접기마스터	철보예술	미술치료	•
			코디네이트미학	
			홈인테리어	

연세대학교	아동미술실기지도자	미술심리치료	유럽문화와예술	전통 민화 실기지도자
	북아트지도자	전통민화실기지도자		
		선물포장코디네이터		
		보석감정과 주얼리마케팅	미학개론	사군자 문인화 포크아트 포슬린 페인팅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미술심리지도사 영어미술지도자 아동미술 실기지도사	포슬린페인팅 전문가과정	• •	
중앙대학교(안성)	미술심리치료사	•	아동미술	•
	영재창의미술지도자		미술치료	
중앙대학교(하남)	아동심리미술치료사	아동미술지도자	•	•
		실버미술지도자		
총신대학교	•	미술심리치료사	미술치료	서양미술
한성대학교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미술심리지도사	•	공간연출디자인	•
	컬러리스트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패션디자인	
한양대학교	미술심리치료사	디자인교육전문가	•	서예
		컬러교육전문가		사군자와 문인화

홍익대학교 미술디자인교육원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과정	미술치료	동양화 전공	미술관과 전시관람
		아동미술		전시기획
		어린이북아트 교육지도자	회화 전공	현대미술작가와 전시
				미디어아트의 이해
				현대미술감상
				미술시장과 경매
				명작 서양미술사
				색채학 연습
				서예
				수묵화
				채색화
				동양화재료 및
			표현연구	
			아동미술학전공	민화
				사군자
				문인화
				현대채묵화
				수묵드로잉
				소묘
				수채화
				유화
		크로키		
		드로잉		
		판화		
현대미술				
뉴미디어				
공간과 생활디자인				
패션일러스트레이션				
기초사진				
가죽공예				
북아트				
스테인드글라스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표Ⅲ-3〉은 서울지역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미술프로그램 현황 분류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미술관련 강좌를 자격증과정, 전문교육과정, 학점은행제, 교양강좌 의 네 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전문교육과정의 경우 학교마다 자격증과정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교양강좌에 속하는 경우도 있어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프로그램 진행 내용과 수강 후 진로에 대해 조사한 후 분류하였다.

평생교육원 대부분 학점은행제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전공·교양 과목 들 중 미술영역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술관련 전공과목이 개설된 학교들은 디자인, 멀티미디어, 패션 등의 과목이었다. 순수영역 분야의 미술 과목은 장기적으로 실기를 통해 단련을 해야 하고 소질을 계발해 나가야 하는 분야로써 일정 기간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시스템에는 적용이 어려워 교양과목 내 이론영역, 감상 부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취미·교양영역은 일반강좌로 분류되어있는데 대체적으로 학교들마다 공통된 점을 찾을 수 있다. 서예, 수채화, 유화, 인물코스튬, 사군자, 소묘 등은 대부분 개설되어 있었다. 각 학교 소속 교수·강사들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학기 15주 과정 혹은 4학기 과정으로 진행한다.

미술 분야의 전문 자격증이 미술심리치료사, 아동미술치료사, 아동미술실기 지도사 등 명칭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민간자격증으로 협회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다. 이 자격증 과정은 각 대학평생교육원에 대부분 개설되어 있다. 최근 심리치료, 아동 관련 자격증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각 평생교육원의 자격증 과정에 대부분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미술관련 자격증의 경우 평생교육원에서 대부분 유사한 자격증과정을 개설하고 있어서 어느 학교를 선택 하든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양강좌의 경우에도 사군자, 서예, 수채화, 소묘 등의 과목은 기본적으로 배우고 시작해야 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 또한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이와는 다르게 여러 대학평생교육원들 중 미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미술디자인교육원의 경우 80년대 후반에 설립된 전통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대학들 중 유일하게 준학예사 자격증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전문분야로의 진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교양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다섯 개의 분야로 나누어 이론수업과 다양한 실기수업을 개설해 놓아 선택의 폭이 넓은 점은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2) 여성회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표 Ⅲ-4〉 여성회관의 미술관련 프로그램

구분	명칭	자격증과정	전문과정	교양·취미
서울시	A여성회관	선물포장	미술치료사	냅킨아트
				캘리그라피
				POP광고글씨
			POP강사양성	인테리어소품과 가구만들기
				가족소품만들기
				그림으로보는 서양미술사
		북아트지도사	도예전문가	데생
				수채화
				유화
				누드크로키
				누드인물화
				코스튬
				아크릴화
				수묵화
서예				
민화				
자유회화				
경기도	B여성회관	화훼장식기능사	·	선물포장 및 리본공예
				한지공예
				초록인테리어
				문인화
				수채화
				서예
경기도	C여성회관	미술심리치료사	·	수채화
		POP예쁜글씨		수묵화

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의 노력에 힘쓰고 있는 여성회관은 과거의 취미위주의 교육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A여성회관은 서울시 소재의 여러 여성회관들 중에 환경·프로그램의 종류·수강자들의 활성화 정도가 월등히 뛰어난 지역으로 미술 관련 강좌의 현황도 그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개설되어 있는 교양강좌의 종류를 보면 POP광고글씨와 소품 만들기, 일반 기초 미술실기 수업은 타 평생교육기관과 별 차이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개설된 강좌의 수는 대학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기관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다양했다.

수강기간은 3개월로 12주차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학평생교육원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수업료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는 없었다.

경기도 소재의 B, C 여성회관은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져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여성회관이다. 교육프로그램의 수도 다양화 되고 전문화 되었지만, 미술관련 분야는 그렇지 못했다. 요리·제과, 미용, 공인중개사 등의 실용 과목으로 편중되어 개설된 점이 A회관과 비교되었다. 교양의 측면만 강조되어 있었고 전문 과정의 수업은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여성들의 복지 측면에서 교양·취미 관련 강좌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삶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설립 취지가 있는 만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일회적인 수업이 아닌 강좌들의 개설되어야 한다.

3) 사업장 부설 문화센터 미술교육프로그램 현황

〈표 Ⅲ-5〉 사업장 부설 문화센터 미술교육프로그램

사업장	강좌 내용	기간 (주 1회)
A 백화점	현대 미술의 거장들	4회
	한문 서예	12회
	한글 서예	12회
	연필스케치와 꽃 그림 그리기	12회
	광우의 미술읽기	12회
	음악의 시각화 칸딘스키에서 거미의 루이스부르주아	8회
	넵킨아트 & 우드폼테리어	12회
	초크아트	12회
	예쁜글씨 POP&폼아트	12회
	색연필 일러스트	12회
	서양화	12회
	예술적 영감이 넘치는 에그아트	12회
	포슬린 아트	12회
	실버 보석 공예	12회
	북아트 2급 자격증	12회
	예술을 만끽하는 Art Gallery Tour	10회
	캘리그래피	12회
	누드드로잉	12회
	연필&색연필 인물화	12회
	유화 기초 실기	12회
	생활도자기와 테라코타	12회
	문인화	12회
	컨슈리퐁 DIY 톨페인팅	12회
	유럽 문화산책 - 현대미술과의 대화	10회
	유럽 회화속의 그리스 신화	10회
	선물포장 코디네이터	12회
	리본크래프트 전문가	12회
	인사동 미술관을 미술평론가와 함께	6회
	유럽풍 번지기로 나아가는 꽃그림	12회

B 백화점	19C 파리인상주의 미술	4회
	미술품 경매 시장 탐구	4회
	유럽미술관 기행	4회
	색연필 꽃그림그리기	12회
	닥종이 인형 만들기	12회
	사군자	12회
	파스텔화	12회
	한글서예	12회
	향기로운 꽃그림	12회
	유화와 아크릴	11회
	연필인물화	12회
	나만의 명작그리기	12회
	전통 민화	11회
	정물과 유화	12회
	포슬린 페인팅	12회

백화점 문화센터는 지역 여성들의 문화 및 여가선용·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개설하고 있다. 주이용 계층은 주부로 대다수가 취미·교양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 미술관련 강좌는 대부분 미술이론과 서양화, 한국화, 공예 실기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습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법한 제목의 강좌들이 눈에 띄는데 수업 내용은 대부분 평범한 이론중심의 강의였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여성 회관에 개설되어있는 자격증 과정은 A백화점에 북아트지도사2급 한 강좌 밖에 없었으며 취·창업에 할 수 있는 포슬린 페인팅, 초크아트, POP 등의 과정은 단기적인 과정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문성을 목표로 장기적인 접근을 하려는 학습자들에게는 맛보기 형식의 강의로 여겨질 듯하다.

대부분의 백화점 문화센터는 주로 기업 이미지 제고와 잠재고객 확보 및 기업적 필요에 의해 태동하고 육성되었다. 지역주민들의 교육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다는 시대의 흐름과 유행을 추종하는 수강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고, 학습자의 경제수준은 상류층이 주류이며 여가선용, 취미, 예술, 건강 영역 등이다.

IV. 연구 결과 및 제언

1. 장소의 특성을 살린 전문성 있는 미술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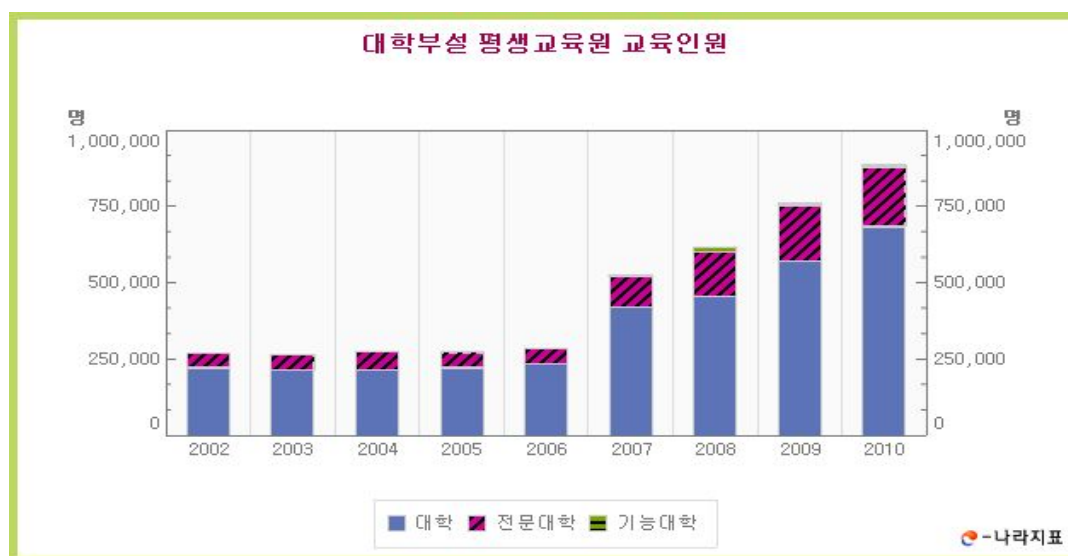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여성회관, 백화점 문화센터 는 성인여성들에게 취·창업 을 위한 직업 능력 향상 교육과 자기계발을 통한 잠재성 발현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개설하여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기관들이다. 고등교육기관, 지역 자치구 운영, 백화점 운영 이라는 점에서 각 기관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며 설립 취지 또한 차이는 있다. 그러한 점은 교육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주었다.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경우 엘리트 양성기관으로의 이미지가 확고한 대학의 부설기관이라는 점이 일반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실제 프로그램들을 조사해 본 결과 미술 관련자격증 과정은 대부분의 평생교육원들이 개설하고 있는 점을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었는데, 이는 비단 전문적인 과정을 설치해 전문인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만 볼 수는 없다. 최근 아동심리, 미술치료 등의 과목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자격증 교육 기관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게, 유행을 따라 강좌가 개설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 소재 평생교육원의 미술프로그램의 일반·교양강좌 또한 대동소이하였다. 서예, 사군자, 유화, 수채화, 소묘 등의 강좌는 대부분 개설되어 있었다.

15주의 과정으로 기초 도구들의 이해와 기본 형태의 이해의 시간을 가진 후 각 과목에 맞는 기초 도형 혹은 사물들을 익힌 후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여성회관의 프로그램과 다른 점을 크게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경우 본교 교수진과 강사진들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수업의 진행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이다.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진행 강사들 또한 다수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 외부 강사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강의를 수강하기에 앞서 강사의 약력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거나 아예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수업 첫 시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는 교육프로그램 계획서만 봤을 때 여성회관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다. 대부분 온라인상으로 수강신청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편리하기에 홈페이지 상에 제시된 강의계획서는 선택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은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서의 미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의 면모를 잃지 않는 강좌를 진행해야 한다.



〈그림 IV-1〉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교육인원

출처 :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원의 요구분석 결과 성인학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교육기관은 대학평생교육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의 자료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인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성인학습자들은 대학의 전문적이고 이미지에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엘리트 교육을 지향해온 대학의 위상에 걸 맞는 결과인 것이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학습자들의 학습욕구에 걸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성인여성의 취·창업 기반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확충

앞서 살펴본 미술관련 자격증은 개인의 취업을 확실히 보장하지는 못한다. 자격증 취득 후에도 협회의 연수를 일정기간 받거나 심화된 내용의 강의를 수료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필요로 하고 있다. 게다가, 미술관련 자격증은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심리치료분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이기에 자격증 취득자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민간자격증은 기관마다 인정하고 있는 양상이 달라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적·경제적으로 투자를 필요로 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재취업의 방안으로 자격증·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취업의 방향 설정도 기관이 연계해 주기 힘든 실정이라 이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 북아트 지도사와 포슬린 아트 등 취·창업이 가능한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수료한 후 재취업을 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의 주부잡지에서 인터뷰를 한 자료를 인터넷 통해 찾을 수 있었다.

프로그램 수강 이후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한 분야임을 설명하고 있었고, 사설 기관에 비해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는 시간은 더 걸리지만 중점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성인 여성 학습자들은 다양하거나 전문적이지 못하고 취미·교양 중심의 일반적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음을 깨닫고, 사회에서 인정하는 학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일반 평생교육기관에 비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 취업기회 제공에 대한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학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선택한다. 이처럼 평생교육기관은 이들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 혹은 타 분야에서 취업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고학력 엄마들의 재론칭 프로그램 - 레몬트리, KB 골든라이프 인용

<사례1>

디자인을 전공하고 제일모직 디자이너로 8년간 일하며 커리어를 쌓았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서 자정이 넘도록 상품 품평회를 하고 기획과 마감을 하는 생활이 힘에 부쳤다. 아이를 낳고 쉬는 기간이 생기자 금세 트렌드가 변하는 디자인 업계로 복직하기가 힘들었다. 디자인 전공을 살리면서 새롭게 해볼 수 있는 일엔 어떤 것이 있을까 알아보다가 ○○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포슬린 페인팅 전문가 과정을 선택했다. 현재 포슬린 페인팅을 알리는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평생교육원 강사과정을 계속 공부 중이다.

▶ 내용

포슬린 페인팅 전문가 과정은 수료 기간이 5학기, 총 2년 반으로 매우 길지만 일주일에 하루 3시간 정도 교육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다. 학생들이 선생님께 개인지도 형식으로 꼼꼼하게 배우다 보니 수료 후에는 일반 사설기관에서 빠른 과정으로 포슬린 페인팅을 배운 사람들과 실력 차이가 난다.

▶ 수강 이후

포슬린 페인팅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면 자신의 집에서 홈 스쿨의 형태로 소규모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취미를 갖기 원하는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반응이 좋다. 또한 백화점 문화센터에 강의를 나가거나 작품 제작 분야를 확장시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스텝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포슬린페인팅 공방을 지방에 개설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금은 딱 2곳만 있지만 포슬린페인팅을 배우고자 하는 수요는 점점 늘고 있어 전망이 밝다.

▶ 조언

포슬린페인팅의 경우 평생교육원에서 배우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꼼꼼하고 경제적으로 배울 수 있고 사설기관에서 배울 경우 좀 더 빠른 시간에 과정을 이수할 수는 있지만 수강료 지출 부담이 크다. 따라서 자신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교육 받는 과정에서 얼마 정도의 지출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계획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사례2>

대학 졸업 후 미술 전공 하나만으로는 차별화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 전공을 바탕으로 좀 더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아직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야를 새롭게 개척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북아트 교육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문화센터와 사설 기관에서 어린이북아트 과정, 북아트논술자격증 과정을 마치고 전망이 밝다고 생각해 2년 전 □□대학교에서 북아트지도자 과정을 이수했다. 현재 북아트&북키즈 스쿨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 내용

□□대학교 사회교육원의 북아트지도자 과정은 북아트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 있다. 보통 북바인딩, 독서논술, 어린이북아트 등 파트별로 강의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북아트의 개념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교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아울러서 배우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마치면 배우면서 자신이 흥미를 느꼈던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본적으로 아동미술과 디자인론 등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강의 내용과 수준이 깊이 있고 전문적이다. 6개월은 책 내용에 중점을 둔 독서 교육에 초점을 맞추다가 강의 후반으로 가면 팝업 효과, 페이퍼 커팅 기법, 북아트 구조 실습 등 아트에 초점을 맞춰 배운다. 또한 30명의 학생들이 그룹을 만들어 어떤 주제의 책을 만들지 수집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매일 이루어지다 보니 서로 다른 의견을 들으며 배울 수 있다.

▶ 수강 이후

수강생 대부분은 독서지도 관련 분야로 진출하는데, 동화구연과 방과 후 독서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일하면서 북아트를 접목시켜 가르치는 경우다. 일반적인 독서지도사보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나 도서관 활성 교육을 하는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활동 강사로 초청 받는 경우가 많다. 또 독서 교육을 하는 사설학원에서 일할 수도 있다. 창업을 원하는 경우 북바인딩을 교육하면서 재료 판매를 겸할 수 있다. 작품만은 만드는 북 아티스트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있고 북 디자인이나 웨딩 앨범 제작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등 진출 방향은 무한 하다. 최근에는 노인 복지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바느질을 이용해서 회고록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실버 북아트'의 전망이 밝다.

▶ 조언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이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도 경험하려고 노력하면 좋다. 각종 북 페어에 전시 스태프로 참여하거나 아동 복지시설에 북아트 무료 강의를 나가곤 했는데, 이러한 경험이 현재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 분야에 가장 유명한 선생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중략

3. 차별화 된 미술 교양 강좌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미술관련 프로그램들을 조사해 본 결과 미술 이론 부분은 교양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백화점 문화센터의 미술 강좌의 경우 책을 읽는 것과 같은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었고, 단기적 혹은 일회적인 강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여성회관에서는 실기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서 미술 교양 강좌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다양한 미술 관련 일반 강좌를 개설 중에 있었으나 서양미술사에 한정되어 있었다.

미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미술 수업을 통해 실기 능력 향상을 통해서, 이론 공부를 통해 지식을 얻음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승화되고 있다. 그와 함께 작가들의 작품에서 미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미술작품을 향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작품을 보는 안목을 높이는 것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며 미술작품을 이해하는 여러 공부도 수반되어야 하기에 이와 같은 내용을 교육하는 기관들도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한국미술경영연구소 주관으로 △△대학의 평생교육원 미술관련 특별강좌로 ‘아트마켓 & 아트테크’라는 강좌명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현재 8기가 진행 중이며, 매 학기마다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차별화된 특징이다. 강의 종료 후에는 수강생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작가의 작업실 방문, 전시회 관람 등을 강사가 직접 주도하고 있는데 정보 교류와 친목 도모는 물론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었다. 과정을 마치면 자격증이 발급되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에게 미술현장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지식과 미적 안목을 발전시키는데 본 강의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강의 수료 후에 개인이 갤러리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

문 컬렉터·아트딜러·아트컨설턴트 등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많다.

이처럼 미술 작품을 통해 미적 감수성을 기르고 만족감을 느끼는 프로그램이야말로 평생교육의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있다.

4. 평생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현상의 해소

〈표 III-2〉의 서울지역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현황을 보면 서울 지역 내에서 수도권 특정 자치구에 평생교육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으로 나누어보면 〈표 V-1〉에서처럼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분포 되어있는 현황이다.

〈표 V-1〉 지역별 평생교육 개황 (단위 : 개, 명)

구분	기관수	프로그램수	학습자수	교·강사수	사무직원수
총계	2,807	136,123	22,454,539	57,177	12,873
수도권	1,651	87,951	19,734,102	34,409	8,553
비수도권	1,156	48,172	2,720,437	22,768	4,320
서울	1,027	62,249	18,810,215	21,904	6,130
부산	138	7,102	319,375	3,862	593
대구	134	7,642	1,254,707	2,889	658
인천	104	3,773	146,552	2,127	369
광주	75	3,380	129,659	1,629	281
대전	89	3,114	101,520	1,924	305
울산	42	3,269	133,106	1,196	160
경기	520	21,929	777,335	10,378	2,054
강원	82	1,688	46,503	1,009	278
충북	58	1,368	88,193	851	173
충남	101	3,801	105,680	1,832	391
전북	86	3,360	87,070	1,337	284

전남	82	2,753	110,011	1,325	262
경북	112	2,598	117,846	1,498	397
경남	131	7,293	179,976	3,000	449
제주	26	804	46,791	416	89

- 주: 1) 학습자는 프로그램별 중복 학습자를 각각의 학습자로 간주하여 합산하였으며, 정확한 의미에
서는 프로그램 등록건수임.
2) 프로그램 및 학습자수는 1년(2008. 5. 2 ~ 2009. 5. 1)동안의 합산수치임.
3) 지역별 학습자수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해당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임.
4)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포함함.

일반적인 영리 평생교육기관과 달리 대학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대학에서만 가능한 전문적 기술, 지식, 가치 등의 교육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학습자들은 <그림 IV-1>의 그래프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인들의 학습욕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의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들은 특정 자치구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원거리 거주자들은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울·경기 지역의 평생교육기관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이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장소에서 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기술과 지식의 수명이 짧아지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주도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평생교육기관은 전 지역에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재정적 마련을 필요로 하며 교육의 평등의 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역민 모두 열린 공간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계발, 직업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 평생교육기관들 중에 여성교육을 전담하고 있거나 주 교육대상을 여성으로 하여 미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개설된 미술관련 프로그램 강좌들의 현황을 조사해 보고 수요 후에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 여성들의 잠재성을 계발하여 자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평생교육의 이념에 맞게 생애 전체를 통합하여 장기적인 교육의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프로그램 조사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방법 등을 제시하였으며,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한을 둔 부분을 밝혔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연구의 핵심인 평생교육과 미술의 관련성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성인여성의 특성에 관해서 기술하였다.

먼저, 평생교육의 개념을 명시한 후에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밝힘으로써 본 연구의 토대가 되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평생교육을 위해 미술교과는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 개인의 잠재성 계발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정리해 보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성인여성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함께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과 더불어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여성의 평생교육은 개인적·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평생교육과 미술, 그리고 여성에 대한 특성을 조사해 보았고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여성복지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표적인 평생교육원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특성을 기술하였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들의 직업 능력 향상과 취·창업을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여성회관은 기존의 교양·취미 중심의 여가 선용의 기관을 탈피하여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센터는 취미·교양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여 사업장 이용 고객의 취향에 따라 프로그램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 대학부설평생교육기관은 취미·교양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전문적인 교육과정, 자격증과정까지 심도 깊은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다. 최근 대학부설평생교육기관의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대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에 힘입어 평생교육을 주도하는 고등교육기관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여성평생교육기관들의 미술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였다. 여러 기관의 유형들 중 미술 분야의 과목들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는 기관인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여성회관, 문화센터 세 곳을 정하였다. 각 평생교육원의 특성에 따라 어떤 종류의 미술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학습자들은 수강 후에 취·창업, 자기계발 등의 효과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를 프로그램의 내용, 시간 등을 파악하여 질적인 면을 분석해 보았다.

이어서 앞 장에서 조사한 여성평생교육기관의 미술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실태를 파악해보고, 평생교육원에서 수강 이후에 재취업에 성공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의 인터뷰 기사를 바탕으로 미술프로그램의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기관들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인 여성들은 결혼 후에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 중에는 고학력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력이 단절된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직업능력의 계발을 통한 재취업 기회를 얻고자 평생교육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

다. 경력 단절 여성들과 더불어 직장인 여성들 또한 평생교육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였는데 자신의 능력의 계발과 잠재성의 발현을 통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은 교육자들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평생교육기관들은 학습자가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수강 이후에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들은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되, 교육프로그램의 수강 후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용의 전문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양 위주의 한정된 내용에서 다양한 분야의 미술을 접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둘째, 성인여성의 취·창업 기반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한다. 평생교육기관에서 미술관련 자격증 강의 수료 시 자격증 취득 시험 자격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 합격 후에도 곧바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더 많은 공부를 통해 개인이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전문 과정 수업의 경우에도 과정 이수 시에 총장명의 수료증이 발급되는데 이는 국가 공인이 아니기에 취업과 연계되지는 않는다.

셋째, 차별화 된 미술 교양 강좌를 확충하여야 한다. 백화점 문화센터의 미술관련 프로그램을 조사해보면 단순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교양 위주의 과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양미술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특별히 개성 있는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다. 대학들도 각 대학의 특성과 전통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넷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평생교육관의 시설을 지역별로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시설의 수가 차이가 났다. 이는 원거리가 학습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평생학습의 혜택을 다수의 성인들에게 분배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특정 지역 집중화 현상을 해소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과 문헌연구를 통해 여성평생교육기관들의 현황과 약 후 문제점을 찾아보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평생교육기관들의 집중 현상을 보인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모든 기관을 조사하지 못하였고, 학습자들의 심층 면접을 하여 미술프로그램의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 하지 못한 점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평생교육기관 조사결과 상당히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생교육기관은 여성학습자들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며, 잠재성을 계발하여 지식·기반 사회에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논고는 성인여성들의 경력단절 현상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여성평생교육기관들의 설립 의의에 맞는 미술교육프로그램 개설 현황 파악 및 개선점에 대해 조사·연구 하였다. 분석 결과 제시된 평생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의 미비한 부분은 양질의 양적·질적 평가를 통해 집중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 일반인들에게 교양영역으로 치부되었던 미술교육의 분야를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과 관련, 효율적인 평생교육 방안 탐구 및 미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언함에 있어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곽삼근 『여성주의 교육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 권대봉 『평생교육의 다섯 마당』 2001
- 김성숙 외 8인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09
- 김재인 외 13인 『여성교육개론』 교육과학사, 2009
- 김종서 외 3인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2007
- 김중규 『선행정학 개론』 성지각, 2006
- 배석영 외 3인 『평생교육론』 양서원, 2010
- 이옥형 외 2인 『교육심리학』 집문당, 2007
-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2
- 한상길 외 2인 『여성교육론』 양서원, 2007

학술논문

- 강영숙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른 여성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비교 분석 : 서울시 소재 기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평생교육학과, 2004
- 고영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제와 특성분석」 동의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2011
- 구혜정 「기혼 성인여성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관련 요인 연구」 『한국교육학 연구』 2009, Vol.15 No.3 pp. 241-264
- 김성숙 「문화예술교육에서 미술교육의 역할 : 생명력 회복을 위한 미술교육의 제안」 『조형교육』 2007, No.30
- 김영경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경력개발계획과 재취업교육 요구분석 연구」 『여성연구 논총』 2007, Vol.73 No.2 pp.85-118
- 김형숙 「미술과 지역사회의 파트너쉽 : 지역사회 미술교육의 성립 배경을 통해 본 실태 연구」 『미술교육논총』 2009, Vol.23 No.1 pp.93-124

- 김혜란 「여성회관의 기능 활성화 방안」 『젠더와 문화』 2009, Vol.2, No.2 pp.57-58
- 김황기 「미술교육의 존재 지향적 전개를 위한 탐색(Ⅲ)」 『미술교육논총』 2010, Vol.24 No.1 pp.177-198
- 나윤경 「여성주의 시각으로 분석한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프로그램」 『한국평생교육학회』 2007, Vol. 13, No.1 pp. 133-159
- 박승호, 유숙영 「고학력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연구」 『여성연구 논총』 2008, Vol.21, p.125
- 박은경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미술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현대미술연구』 Vo:8 pp.175-195
- 신미식 「여성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 : 가능성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평생교육학회』 2002, 18(1), pp.121-151
- 윤혜경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진로 탐색 경험 분석」 『한국평생교육학회』 2008, Vol.14, No.1 pp.83-112
- 임숙경 외1명 「여성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 및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
- 임희정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기업의 인사관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논총』 p.55
- 장서영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논총』 2008, Vol.74 No.1 p.80
- 정연희 「미술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실천 역량」 『미술교육논총』 2010, Vol.24 No.1 pp.1-26
- 천세영, 이삼경 「성인여성학습자의 학습욕구와 고등교육기회 접근형태간의 불일치 현상 탐구」 『한국평생교육학회』 2009, Vol.15, No.2 pp.169-185
- 황수경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현.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 변경), 2006
- 모형분석」 『한국성인교육학회』 2008, Vol.11 No.4 pp.53-76

황향숙 「미술교육의 확장 : 치유적 기능으로서의 미술교육」 『미술교육논
총』 2005, Vol.19 No.2 pp.415-438

학위논문

김수정 「대학 부설 평생 교육원의 미술 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고려대
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06

변자정 「국내외 미술관 및 박물관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2007

원영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미술교육 프로그램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
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07

임숙경 「여성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 및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모형분
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2007

조영호 「평생교육으로서 미술감상 지도방법」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 전공, 2007

조희운 「성인대상 미술관 전시연계프로그램 현황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10

최희진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실태조사 :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중
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2008

연구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백서』 2009

김양희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방안』 집문당, 2003

박성열 『지식기반사회의 평생교육 이해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집문당, 200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 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제고를 위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08

웹 페이지

2008, 고학력 엄마들의 재론칭 프로그램, 레몬트리 재인용, 2008/10/17 18: 32

<http://blog.naver.com/haesoon02?Redirect=Log&logNo=50036285330>

(2011/05/01 20: 43: 04)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www.womenpro.or.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http://wrd.seoulwomen.or.kr/>

여성교육개발원 <http://www.eduwoman.co.kr/index.php>

여성인력개발센터 <http://www.vocation.or.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평생교육회 <http://womanedu.lll.or.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Abstract

Study on How to Improve the Art Education Programs at Women's Continuing Education Institutes

- For Women in their 20's and 30's -

Kim, So-young

Major in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Human effort to adjust to rapid changes on the advent of a knowledge-based information world manifests in many fields of society. Each field of present society needs the ability to fulfill its various tasks based on professional knowledge. This ability to deal with these changes has become a topic of conversation. Individual knowledge tends to be of a better quality today and more specific.

In the past, it was not difficult to maintain a job in industrial society with individually given tasks and limited learning components but in modern society where today's knowledge is different from yesterday's knowledge, an effort to accept or reject a variety of knowledge with a more critical eye is required. In addition, the advancements of science and medicine have prolonged human life. As the desire to enrich our prolonged lives and live in

a comfortable environment increases, the effort to improve quality of life is also increasing. In these situations and under these conditions, continuing education has appeared and its importance is gradually increasing.

Currently Korean adult females often can't hold their jobs due to marriage and childcare responsibilities. Even when they try to re-enter the job market after their children are older, it's not easy for them to restart their economic activity because they often want to return to work at the same, or an even higher level as their old job. The cutting-off of women's careers does not only cause individual financial loss, but also impacts society's economic loss by not utilizing all the highly educated human resources available. This social phenomena and women's desire for their self-fulfillment helped to vitalize continuing education institutions.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demands according to a variety of individual situations coupled with increased women's individual needs and awareness, many continuing educational institutions have been founded and managed throughout the whole of society.

The significance of women's continuing education depends on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by developing their abilities and fulfilling their whole selves, and on expanding their participation in society by developing these abilities. To live in the present when one's knowledge is fixed in the past is limiting. This is because the degree of achieved information based on knowledge decides the quality of life. The flexible and creative point of view of people in

order to actively handle this change made them com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rt and culture.

Art, the subject that helps people's individual potential ability manifest itself and enrich their lives, that helps them to be reborn as creative human beings by developing their artistic disposition, has changed along with the times. Art helps nurture the aesthetic sensitivity of people with its innate values and extend creativity. Even before the concept of continuing education was formed, art has offered a variety of educational experiences for children and adult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finding a way to develop career experiences to find employment for women whose careers prematurely ended and for women with a higher education level than their jobs demand through the positive functions of art. It is to find an artistic experience and effective way that art subjects can offer in an aspect of continuing education by applying an excellent art education method with good quality to enrich women's lives.

This study looks at art as an educational tool that enriches women's lives and as a curriculum subject that contributes to helping women's employment through self-development through continuing education. And through case studies it tries to present the problems of art education programs offered by current continuing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m.